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4 면에서 계속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오인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총대들이 《백두의 행군길 이어 가리라》의 주악에 맞추어 발걸음도 드높이 광장을 누비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세!》의 함성을 울리며 나아가는 열병총대들에 손을 높이 드시어 뜨거운 달례를 보내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걸사옹위하는 성세, 방패가 될 억척불변의 신념의 피성인양 열병대원들이 울리는 힘찬 발구름소리가 온 광장에 메아리쳤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편철하는 길에서 강위력한 민방위무력으로 자라난 평양시와 각 도로농직위군총대들, 붉은청년군위대총대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총대들이 한손에는 마지와

낮과 빛을, 다른 한손에는 혁명의 무기를 틀어잡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펼쳐갈 혁명의 명세를 안고 도도히 굽이쳐갔다.

우리의 영웅한 전투비행사들이 《105》라는 수자로 대행을 이루고 태양절경축의 축포를 울리며 광장상공을 지나갔다.

《무장으로 반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의 군악이 전감하는 속에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시위하며 기계화총대들의 장엄한 질의 흐름이 시작되였다.

김송철 육군상장, 박정현 육군중장, 오금철 항공군대장의 지휘자를 따라 탕크, 장갑차총대, 포병총대, 군중로케트총대들이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최고사령판기를 휘날리며 광장에 들어섰다.

정연하게 대렬을 짓고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과시하며 나아가는 무지철마들과 자행정곡사포, 주체포, 방사포들이 우리를 압살해보려고 기승을 부리는 원수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금시라도 노오한 격멸의 불길을 내뿜을것만 같은 강철포신들

거연히 추켜들고 나아갔다.

도발의 본거지들을 섬멸의 타격권에 잡아넣고 하늘, 땅, 바다에서 무지비한 불벼락을 안길 우리 식의 위력한 로케트총대들의 장쾌한 동음이 광장을 전감하였다.

주체의 년분을 배다섯번세로 아로새기는 태양조선의 하늘가를 누비며 우리의 붉은대들이 높은 비행술로 《105》라는 수자대행을 짓고 날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확실히 선전지명파 대용단, 헌신의 로고속에 창설되고 병진의 기치높이 질량적으로 강화발전된 전략군로케트총대들이 리병철 육군대장, 김락겸 전략군대장의 지휘자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다.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정치경제적붕괴와 군사적압박으로 우리 공화국을 질식사하려고 날뛰는 날강도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무지비한 철추를 내리고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해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로케트무력건설

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병도에 의하여 주체 88(1999)년 7월 3일에 창설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오늘 자위적억척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한 도대로, 무적필승의 전투대로로 강화되였다.

고도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수단들은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얼뜰만들이라도 건드린다면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임의의 공간에서 침략파 도발의 아성을 순식간에 초토화해버리고야말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시위하며 광장주식단열을 지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장력강화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발사현장들까지 찾오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의논도 해주시면서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열병광장에 뜨겁게 굽이쳤다.

노도서 전진하는 기계화단대의 역센 모습 을 보면서 군중들은 역사의 모전 시련과 원수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당당한 핵보유국, 군사강국으로 솟아오른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행진군악대가 《사수》라는 글말을 새기며 섹씩하게 나가는 속에 광장상공에 우리의 용감무쌍한 전투비행대가 오색부채살모양의 비행운을 새기며 열병식마감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경축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들이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상과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정중히 모신 기발대렬이 들어서자 광장은 또다시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7 면으로 계속

